



SEE MORE JESUS · WANTTOSEEMORE.COM

육신이 되신 말씀 — 스트롱 번호가 포함된 성경 연구

약속되었다가 육신이 되신 이 — 고난받는 종, 임마누엘, 처녀, 말씀

성경적 기초 교리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개회사

이 연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은 그 약속들을 따라간다. 십자가보다 훨씬 오래 전에 기록된, 멸시받고 버림받은 종.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는 처녀. 동산에서 그 여자에게 약속된 씨. 그리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리고 보이고 만져진 것. 약속이 먼저 왔다. 그 후에 그 인격이 오셨다.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모두 성경 자신의 말로 읽는다.

이 연구가 답하는 세 가지 질문:

1. 이사야 53장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슬픔의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표적은 무엇이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
3. 예수님 자신은 사람이 어디를 보아야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가?

오프닝 앵커

E4.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개인적인 생각: 미가 5장 2절의 한 문장이 이 연구 전체의 양 끝을 담고 있다. 이 통치자는 작은 마을에서 나온다. 작은 마을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의 시작이다. 이 통치자의 나움은 상고에, 영원에 속한다. 영원으로부터의 나움은 전혀 시작이 아니다. 미가는 두 진리를 같은 문장 안에서 진술한다. 미가는 어느 쪽 진리도 약화시키지 않는다.)

D. 고난받는 종 — 십자가가 있기도 전에 십자가를 묘사한 장

D1. 이사야 52:1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5)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니 --> 그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며.

D2. 이사야 53: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D3. 이사야 53: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 그는 멸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D4. 이사야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D5.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D6. 이사야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D7. 이사야 53:8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끌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끌어짐은 -->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D8. 이사야 53:9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는 그 무덤을 악인과 함께 정하였으나 그 죽음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D9. 이사야 53:10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 그가 씨를 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D10. 이사야 53:11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재하였느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사야 53:9을 읽고 나서 이사야 53:10을 순서대로 다시 읽으십시오. 이사야 53:9은 그 종이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3:10은 그 종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로 드러진 후에, 그 종이 자기 씨를 보며 그의 날들을 길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두 진술은 죽은 채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에는 둘 다 참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이사야의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기 칠백 년 전에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점, 같은 장면 — 선지자의 두루마리, 그리고 병거 안에서 그것을 소리 내어 읽는 사람

사도행전 8:32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시뇨 자기를 가리킵시뇨 타인을 가리킵시뇨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선지자가 이 말을 누구를 가리켜 함이나 -->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것은 그 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소리 내어 던진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그 답은 빌립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닙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바로 그 구절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그 구절로부터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사도들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읽었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E.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태어난 아이와 주어진 아들

E1.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5959 almah · ■ H6005 Immanuel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E2.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6382 pele

한 아기가 태어나고 +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이며 --> 그 정사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사야 9장 6절의 두 동사의 순서를 보라. 이 두 동사는 같은 동사가 아니다. 이 두 동사가 그 순서로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BORN). 한 아들을 주셨다(GIVEN). 태어났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한다. 주셨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던 한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이제 이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들을 생각해 보라. 이사야 9장 6절은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사야 9장 6절은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한다. 목록의 첫 번째 이름인 기묘자는 펠레(H6382)이다. 펠레는 사사기 13장에서 마노아가 이름을 물었으나 얻을 수 없었을 때 받은 대답과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 이름이 주어진다.)

E3. 이사야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F. 여자의 후손과 처녀 — 첫 약속과 그 성취

F1.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두리니 -->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때, 동산에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구절이 누구의 씨를 지칭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가계는 남자를 통해 추적됩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입니다. 여기, 단 한 번, 바로 태초에, 지칭된 후손은 여자의 씨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개의 상처가 크기가 같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자의 씨의 발꿈치는 상하게 됩니다. 뱀의 머리는 상하게(부서지게) 됩니다.)

F2. 갈라디아서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다음에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보내심이 문장에서 먼저 언급됩니다. 태어남은 문장에서 두 번째로 언급됩니다. 그 순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어떤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장소에서 보내질 수 없습니다.)

다른 관점, 같은 장면 — 약속된 표적과 이루어진 표적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 두 기록의 차이가 곧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기록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기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마태의 기록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태는 또한 어떤 독자도 추측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 멈추어 독자를 위해 그 이름을 번역해 줍니다. 어느 시대의 어떤 독자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에게 떠올리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F3. 누가복음 1:3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 누가복음 1:34에 나오는 마리아의 질문은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마리아가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대답은 논증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주어진 대답은 하나님께서 곧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32에서 언급된 보좌를 주목하십시오: "그 조상 다윗의 위." 이는 이사야 9:7이 그 아이가 앉을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 보좌입니다. 이는 시편 110편이 기록된 바로 그 왕가입니다.)

G. 육신이 되신 말씀 —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그분을 찾는 방법

G1.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056 logos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나의 개인적인 생각: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 절 안에 세 가지 진술을 제시한다. 세 가지 진술 모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진술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이다. 말씀은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사용된 칭호로서, 시작점이 없었다. 두 번째 진술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이다. 말씀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인격체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진술은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이다. 말씀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세 진술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하면 요한이 기록한 문장과는 다른 문장이 된다.)

G2.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어 열쇠 / **STRONG'S**: ■ G4637 skenoo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른 시점, 같은 장면 — 광야의 장막과 한 몸의 장막

출애굽기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을지니 -->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제 개인적인 생각: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시매"라는 말에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오(G4637)입니다. 스케노오는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막을 가죽과 나무와 금으로 지었습니다(출애굽기 25:8).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같은 그림이 다시 나타나지만, 그 장막은 인간의 몸입니다. 광야의 장막은 요한이 묘사하는 진리의 초기 그림이었습니다. 광야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리 가리켰습니다. 신약은 그 그림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계시한 후에야, 광야의 장막을 그림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으로 밝힙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G3. 골로새서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G4.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G5. 그분을 찾는 방법 — 그가 우리에게 어디를 찾을지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상고하라 -->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예수님은 요한복음 5:39-40에서,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 중 거의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암기한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인물을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생명을 찾을 다른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 감정을 살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살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G6. 누가복음 24:25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 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G7. 누가복음 24:32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G8.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 시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라 -->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 니

(제 개인적인 생각: 누가복음 24:44-45은 이 연구 전체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답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 예 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세 부분,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 부분이 합쳐져 구약 전 체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에 자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일부에만 자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말 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두 가지 별개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람은 성경 전체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 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 성경을 열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마무리

G9. 요한일서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 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 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들은 바요 + 눈으로 본 바요 + 주목하고 +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감각들을 일부러 나열합니다: 들은 것, 본 것, 자세히 살펴본 것,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요한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함께 식사했던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요한 은 그 사람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만졌던 그 사람은 태초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3절의 전체 주장입니다. 요한은 이 주장에 대해 이론가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습 퀴즈

1. 이사야 7장 14절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 a) 이름을 예수라 하라
- b)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c)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2. 이사야 53:3 —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으며

- a) 그러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b)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c)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3. 이사야 53:6 —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 a)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b)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 c) 그러나 우리는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 미가 5:2 —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 a)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 b)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 위에
- c) 그의 나오심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5. 갈라디아서 4장 4절 — 그러나 때가 차매:

- a)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 b)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 c)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6. 요한복음 1:14 — 말씀이 육신이 되어:

- a)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 b)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 c)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7. 요한복음 5:39 — 성경을 상고하라 너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나니:

- a)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 b)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 c)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정답: 1-b, 2-c, 3-a, 4-c, 5-a, 6-b, 7-b

이 연구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결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약속된 후손이라는 전체 흐름을 열어준다. 이 흐름은 아브라함(창세기 22장 18절)을 거쳐 다윗(시편 132편 11절)을 지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이름이 밝혀진다.

그리스어 핵심 단어

“말씀” — **G3056 logos** — 말; 말씀; 말해진 것; 생각의 표현

요한복음은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태초 이전부터 시작한다.

“거하다” — **G4637 skenoo** — 장막을 치다; 진을 치다; 장막에서 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이 구절은 사람이 장막에 거하듯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신 것을 묘사한다.

히브리어 핵심어

“기묘자” — **H6382 pele** — 경이; 놀라운 일; 이해를 초월하는 것

펠레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아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름이다.

“처녀” — **H5959 almah** —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처녀; 동정녀

"알마"는 이사야 7장 14절에 사용된 단어이다.

“임마누엘” — **H6005 Immanuwel**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그 자체로 온전한 문장인 이름이다. 마태는 독자를 위해 이 이름을 번역해 준다.

SOURCES & CREDITS

Scripture: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Korean Revised Version, 1961), 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Public Domain (copyright expired 2011-12-31; confirm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Department, The Bible Society of Korea, 2026-08-06)) — a redistributable edition, looked up exactly and never machine-translated.

Alternate chapter/verse numbering reconciled with STEP Bible TVTMS (CC BY 4.0).

Strong's numbering & original-language data: OpenScriptures Hebrew Bible (CC BY 4.0); STEP Bible.org — TAHOT/TAGNT/TBESH/TBESG (CC BY 4.0); Robinson-Pierpont Byzantine Majority Text (Public Domain); Strong's dictionary, 1890 (Public Domain).

Typography: Google Noto fonts (SIL Open Font License 1.1).

© SEE MORE JESUS · wanttoseemore.com — shar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CC BY 4.0).